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조현숙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감사는 믿음입니다 (시 103: 1-5)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복음의 능력” (로마서 1:14-16)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태도와 삶의 열정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1 절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자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끄러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 섬김다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왕이 전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로 택함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24 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로마서 1:15 절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바로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열정이, 담대함이, 감사함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예수의 미친 삶, 그리고 감사와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신앙이 세워져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추수 감사절 - 오늘 예배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점심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TEE 졸업자 - TEE 6 권 성경공부를 마쳤습니다. 1-6 권까지

마치신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손정임, 성미숙, 유명민,

유경애, 이은진, 이화선, 정병철, 조현숙, 한영미, 홍지원

3. 부장, 운영위원 모임 - 12 월 11 일 주일 예배 후에 부장,

운영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4. 성도 총회 - 2022 년 결산과 2023 년 예산을 위한 성도총회가

12 월 18 일 주일에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20 일 (주일)
12 월	성도정기총회	12 월 18 일(주일)
	성탄축하예배	12 월 25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20	11/27	12/04	12/11
대표기도	조현숙	유명민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정명희	이강선		오양순
봉사당번	전교인	등지목장	섬김목장	나눔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692.00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동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추수 감사절을 위한 기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 감사절은 남북전쟁 기간인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표한 이후 연방 공휴일이 되었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1621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한 첫해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첫 추수감사의 날은 삼일간 지속되었으며 신대륙 이주와 더불어 그때까지 생존했던 53명의 청교도들과 90명의 원주민들(인디언들)이 참여한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은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미국에서 이 추수 감사절의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 감사절 보다 몇 주 전에 있는 10월 마지막 날인 할로윈에 죽은 시체나 끔직한 인형들, 호박을 깎아서 만든 괴물들을 집 밖에 장식하고 아이들과 저녁 내내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추수 감사절은 하루와 한 주말을 쉬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추수 감사절이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과 상점들은 연말 분위기의 장식으로 세팅하고 대목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세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추수 감사절에 주목해야 할 '감사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로지 최대 세일을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기분이 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고 공휴일로 정한 이유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인데 이제는 그 참된 이유인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놀고 쉬고, 세일을 하는 날로 전락해 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 신대륙에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정착하여 세워진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설 자리를 잃은 나라로 점점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이제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요 더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죄가 관영한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어 버린 모습으로 변해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계절이지만 웬지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실종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믿는 우리들은 더욱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과 축복의 통로 다시 세워지는 부흥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 시 <i>1:00 P.M.</i>	유년부실 <i>Youth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목장모임 <i>House Church Meeting</i>	매 주 <i>Weekly</i>	목장별 각가정 <i>House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i>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